

주택대출금리 한달새 0.8%p 급락

은행권 이번 주 연 6.10~7.47% 고시

1억 대출자 연간 81만원씩 부담 덜어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CD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점에 달했던 지난 1월 중순과 비교해 한달 반 만에 최대 0.8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주 초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 초보다 0.04%포인트 인하한 연 6.10~7.47%로 고시했다. 이는 주택대출금리가 고점에 달했던 지난달 14일의 연 6.91~

8.28%에 비해 0.8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기업은행에서 이번 주 초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한달 반 전에 빌렸을 때보다 이자를 연간 81만원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 외에 대부분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한달 반 동안의 CD금리 하락 폭을 반영해 0.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외환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연 6.

35~7.53%로 지난달 14일의 연 7.10~8.14%보다 최저금리가 0.75%포인트 떨어졌으며 하나은행의 주택대출금리는 연 6.48~7.18%로 한 달 반 전의 연 7.19~7.89%보다 0.71%포인트 하락했다.

또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연 5.85~7.45%로 지난달 14일 고시된 연 6.55~8.15%보다 0.7%포인트 하락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역시 지난달 14일 금리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연 6.79~8.29%, 연 6.89~8.29%를 적용한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두 달간 주택대출 최저금리가 최고 0.71%포인트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 반 동안의 하락속도가 두 달 간의 상승속도보다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91일물 CD금리는 지난 1월10일 연 5.89%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지난달 29일에는 연 5.18%로 한달 반 만에 0.71%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CD금리 하락세가 둔화하는 등 금리하락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출기간 등을 따져 대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 정책금리 변경

콜금리→'한은 기준금리제'로

한국은행이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가 이달부터 7월말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로 변경된다.

따라서 오는 7월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정책금리의 운용 목표가 종전 '콜금리(무담보일물 기준)'에서 '한은 기준금리'로 바뀐다.

2일 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중반부터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표시장 참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준비작업을 진행, 이달부터 기준금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금리의 운용목표가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되더라도 금리의 수준은 현재와 같이 연 5.00%에서 출발하며 기준금리의 결정 과정도 금융위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되는 종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장사 올 성장동력으로

건설·에너지 분야 쏠려

올해 상장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건설과 에너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이 기대되면서 건설업의 수혜가 기대되는데다 유가급등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 등으로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업목적 변경공시를 한 유가증권시장 소속 상장사 73개사와 코스닥시장 소속 133개사 등 206개사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 등 에너지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71개사(거래소 28개사, 코스닥 43개사)로 전체 관련 공시기업의 34.4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정유업체, 유류세 즉각 인하

정유업체는 2일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제품에 대한 세금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일 당일 공장 반출품부터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값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는 공급가격을 내리면 대리점

과 주유소를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업체는 올해 초 정부가 등유세금을 ㄹ 당 115원 인하한데 따라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 가격을 그만큼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경제연 "올 성장률 4.7%로 하향"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4.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2008년 세계 및 국내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4.4%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9일 올해 성장 전망치를 5.0%로 제시했었다.

연구소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

기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를 내수회복세가 보완하지 못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9%)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의 흐름은 올해 1~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강하는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폭 하락하겠지만, 고정투자자는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체어맨' 마케팅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이 2일 1층 정문 앞에서 바·보이들과 함께하는 '체어맨'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광주점은 고객들에게 차량 내부를 공개하는 한편 시승 기회를 제공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세계 곡물 재고율 14%대 사상 최저

올해 세계 곡물 재고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14%대에 머물고, 여의치 않은 수급여건 때문에 당분간 곡물가격 강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농촌경제연구원 발표된 '세계 곡물 수급·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2008곡물연도(2007년9월~2008년8월)말 기준 재고율은 작년보다 5~10% 많은 800~900명이 될 것으로 SK측은 예상했다.

LG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올해 채용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올해 200여명을 채용할 LG화학은 CEO가 'BC(BIZ & CAMPUS) 투어' 등을 통

해 해외우수인재를 직접 유치하고, 산학(産學)장학생을 적극 뽑기로 했다. 또 LG CNS는 총 400여명, LG이노텍은 250여명, 서브윌 200여명, LG상사 160여명, LG생명과학 100여명, LG테이콤 100여명, LG과워콤 80~100명, LG텔레콤 80여명, 실트론 40여명, LG엔시스 40여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4대 그룹중 가장 먼저 이달 3일부터 전 계열사들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11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거쳐 4월에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가동, 안정적인 해외 식량공급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은 지난달 29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정태석 은행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신입직원 입학식'을 가졌다. 신입직원 21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신입연수 과정을 마치고 3일부터 각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광주은행 제공)

로도복권 (제27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3 14 15 26 35 39	25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505,085,575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5,136,678	37
3	5개 숫자 일치 1,331,784	1,254
4	4개 숫자 일치 58,277	57,315
5	3개 숫자 일치 5,000	923,057

팝콘복권 (제9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317764
2	1억	5조 353909
3	1천만	3조 471387
4	1백만	각조 93119
5	50만	각조 4017
		각조 80
6	2천	각조 58
		각조 05
		각조 4
7	1천	각조 5
		각조 2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시동'

현대 기아차·삼성그룹 등 이달 중 원서접수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공채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선발한 950명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SK는 올 상반기에는 관계사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기로 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5~10% 많은 800~900명이 될 것으로 SK측은 예상했다.

LG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올해 채용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올해 200여명을 채용할 LG화학은 CEO가 'BC(BIZ & CAMPUS) 투어' 등을 통해 해외우수인재를 직접 유치하고, 산학(産學)장학생을 적극 뽑기로 했다. 또 LG CNS는 총 400여명, LG이노텍은 250여명, 서브윌 200여명, LG상사 160여명, LG생명과학 100여명, LG테이콤 100여명, LG과워콤 80~100명, LG텔레콤 80여명, 실트론 40여명, LG엔시스 40여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4대 그룹중 가장 먼저 이달 3일부터 전 계열사들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11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거쳐 4월에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 해외우수인재를 직접 유치하고, 산학(産學)장학생을 적극 뽑기로 했다. 또 LG CNS는 총 400여명, LG이노텍은 250여명, 서브윌 200여명, LG상사 160여명, LG생명과학 100여명, LG테이콤 100여명, LG과워콤 80~100명, LG텔레콤 80여명, 실트론 40여명, LG엔시스 40여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SK는 올 상반기에는 관계사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기로 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5~10% 많은 800~900명이 될 것으로 SK측은 예상했다.

LG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올해 채용규모를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올해 200여명을 채용할 LG화학은 CEO가 'BC(BIZ & CAMPUS) 투어' 등을 통

해 해외우수인재를 직접 유치하고, 산학(産學)장학생을 적극 뽑기로 했다. 또 LG CNS는 총 400여명, LG이노텍은 250여명, 서브윌 200여명, LG상사 160여명, LG생명과학 100여명, LG테이콤 100여명, LG과워콤 80~100명, LG텔레콤 80여명, 실트론 40여명, LG엔시스 40여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4대 그룹중 가장 먼저 이달 3일부터 전 계열사들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11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 뒤, 30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거쳐 4월에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올해 2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이 가운데 40명을 올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전형 및 선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중 모집공고가 날 전망이다.

GS는 올해 GS칼텍스 80명, GS리테일 200명, GS홀딩스 30명, GS건설 140여명 등 총 6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력과 인입을 합쳐 올해는 지난해(2천200명)보다 소폭 늘어난 2천6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룹 공채의 경우 신입사원 1천400명을 통해 1천400명을 수혈한다. /연합뉴스

한달 800만원 벌어도 '적자'

소득상위 30% 중 13% '마이너스 살림살이'

지난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13% 가량은 적자살림에 허덕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기준 소득 상위 30%(소득 8~10분위) 계층에서 가계 살림이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은 13.2%로 분석됐다.

이는 가계수지 통계작성이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소득 상위 30%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12.5%에서 2004년 12.6%, 2005년 12.9%, 2006년 13.0%, 2007년 13.2%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과 지출의 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다른 재산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소득은 2003년 월평균 658만5천원에서 2007년 830만5천원으로 26.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425만5천원에서 555만7천원으로 30.6% 증가해 소득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처럼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와 교통비 등의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꼭 써야만 하는 비소비 지출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KT "실패해도 상 준다"

부서·직원 포상 '베스트 챌린지' 제정

"실패해도 상 준다. 변화를 두려워 말라" 통신업계의 공룡 KT가 '실패한 직원에게 주는 상'을 만들어 화제다.

2일 KT는 통신업계 최초로 실패한 과정을 평가해 사내 부서나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챌린지'(Best Challenge) 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성과나 업적같은 결과물보다는 사업이 실패했다라도 실패 과정에서 도전성, 창의성 등이 돋보인 직원에게 주어진다. 이는 지난달 29일 남중수 사장 인명영 회 3기 사장으로 재임임 되면서 KT가 공격적 경영으로 전환, 통신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문화를 바꿔 회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첫 시상상은 올 4분기에 있을 예정이며 '베스트 챌린지' 상에는 1천만원, '챌린지' 상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각각 걸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062. JW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신영어학원	잉글리쉬 학습과 영어교사 구함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04	062-955-2960
대창 E&T	SK텔레콤 매장관리/에너지사업부 남녀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4	062-383-6831
(유)광산서비스센터	LG전자 서비스센터 안내데스크 안내교역 안내 및 응대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06	062-512-6212
㈜학성엔지니어링	정규직 토목설계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6	061-375-8005
㈜큐로컴 광주지사	컴퓨터 주변기기 광주권 영업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1년	1800~2000	03/07	062-351-3030
㈜일광이앤티	경리직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2-954-2204
제일소프트	캐드기본업무 및 사무업무 채용합니다.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08	062-528-3118
CL 디자인그룹	현장 진행 및 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8	062-603-1083
㈜필코스메틱	[정규직]월드디자인 및 소핑을 관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10	062-267-8071
㈜태창공업	A/S 및 생산관리, R&D 개발업무(수질환경산업기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10	062-956-2413
제일화재(주)	제일화재 대졸 전문 재무상담사(후보) 공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0	062-528-6780
㈜한국벤디	[평택/광주] 국내외영업 및 R&D 신입, 경력 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31-662-3335
㈜일라스	RF engineer(신입) 대졸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972-0224
㈜대경텔레콤	SK대리점 매장직원 및 전산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606-8803

(광주지리번호 512-6210 제공)